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한국경호경비학회의 입장문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를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된 한국경호경비학회는 경호 관련 국내 최고(最古)의 학회로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표한다.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

둘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호 및 보안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집무실 이전에 따라 경호·경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경찰, 군 등 관련 기관, 민간전문가의 협력이 절실하다.

셋째, 이전되는 집무실은 고강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테러예방 설계 (Anti-Terrorism Design)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호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호, 보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무실 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2022. 3. 17.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강 욱 및 회원 일동